

## 대학생들의 정신병질에 대한 반사회성과 정서적 공감의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김 범 준      이 은 진\*      김 영 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대학원

본 연구는 정신병질, 반사회적 성격특징, 공감능력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자 대학생 118명과 여자 대학생 97명을 대상으로 정신병질 척도(PPI-R),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의 반사회적 특징 척도(PAI-ANT)와 정서적 공감 척도(EETS)를 실시하였다.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의 정신병질과 공감 점수 평균이 높았고, 반사회성 특징 점수는 남녀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에서 반사회적 특징은 남녀 모두에서 정신병질 특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적 공감 점수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남성의 경우 정서적 공감은 반사회적 특징 척도의 하위요인들과 정신병질 척도들 모두와 부적 상관을 보였고, 정신병질 척도 점수의 대담성의 우세(PPI-FD) 척도를 제외한 모든 척도들과 그 상관이 유의미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도 정서적 공감 점수가 다른 변인들과 부적 상관의 경향을 보였으나 반사회적 특징 척도의 반사회성 행동 하위척도 점수와의 상관만이 유의미하였다. 정신병질 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실시된 단계적 회귀분석결과, 반사회성, 성별, 공감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반사회성 척도와 공감을 예언변인으로 한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남성들은 반사회성 척도와 공감이 정신병질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나 여성들에서는 반사회성 총합만이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성별로 인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정신병질 척도 점수의 상위 30%와 하위 30%를 이용하여 정신병질 상위집단과 정신병질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변인들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남녀 모두에서 정신병질 상위집단이 반사회적 특징 하위척도들과 총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정서적 공감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들과 의의를 정리하고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요어 : 성차, 정신병질, 반사회적 성격, 정서적 공감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21-H00007).

† 교신저자 : 이은진,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E-mail : lej1130@hotmail.com, Tel : 031-249-9198

심리학이 인간의 마음을 과학적인 틀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오는 동안, 연구자들은 인간의 다양한 특성들에 대해 밝혀오고 이름을 지어왔다. 적응적인 특성들 뿐 아니라 부적응적인 것으로 구분되는 특성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는데 최근에 ‘정신병질’이라는 다소 낮은 용어가 학술문헌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의 일상에 소개되고 있다. 흉악한 연쇄살인범의 행적을 설명할 때, ‘정신병질자’의 특성을 나열하고, 이러한 특질을 지닌 이들이 교정기관이 아닌 일반인 속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가까이에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심어주었다. 우리가 기존에, 위법행동을 자주하고 타인과의 피상적인 관계 등의 특성을 가지는 심리성향에 대해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분류해 온 것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으로 구분하여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정신병질과 반사회적 성격특성과의 관계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성격에 대한 새로운 구인으로서의 정신병질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을 살펴볼 때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토하는 것은 정신병질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에 근접하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에 성차가 있다고 알려져 온 공감능력과 같이 정신병질도 성차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도 정신병질의 세부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세기 초 Pinel(1809)은 ‘습관적으로 이기적이며 반사회적 행동을 하지만, 그런 상황이 정신적 질병의 징후를 나타내지는 않는 사람들’을 구별해 낼 필요성을 느끼고 이들을 ‘정신이상이 아닌 광기(insanity without delirium)’라

는 용어로 개념화하였다(이수정, 허재홍, 2004, 재인용). 이후 Princhar(1835)는 Pinel의 개념을 재구성하여 ‘종교적, 도덕·문화적인 행동과 같이 사회적인 기대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실패한, 명백한 혼란과 뻔뻔함을 지닌 사람들’로 이들을 ‘도덕적 정신이상(moral insanity)’이라 명명하였다(이수정, 박혜영, 2009, 재인용). 이는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이라 구분되는 잠재적인 범죄가능성을 가지는 특질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후 Cleckley(1941, 1976)는 정신병질자들에 대해 ‘외관상으로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보통수준이상의 지능을 가지지만 극히 이기적이고 타인을 자신의 목적달성에 이용하고 무책임하고 냉담하고 거짓말을 잘 하는 특성을 지니는 이’라고 정의하여 학계에 소개한 바 있었다.

현재 사용되는 정신병질에 대한 개념은 정신의학적 병리의 개념에서 출발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성격장애 중 한 범주인 반사회적 성격장애에서 현대 정신병질 개념의 가장 오래된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이수정, 허재홍, 2004). 1952년 미국정신의학회는 정신병질 대신에 사회병질(sociopath)이라는 용어를 범죄행위를 반복하는 이들을 칭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러나 정신병질적 성향이 행동뿐 아니라 잠재적인 가능성도 포함하는 것이라는 입장이 대두되면서 1968년 DSM-III에 이런 행동 특성을 반영한 ‘반사회적 성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라는 개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위법행동을 계속 보이는 이들에 대해 의학 분야에서는 반사회적 성격장애라 지칭해 오면서 형사사법 현장에서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진단을 위해 범죄나 비행행동을 주요 진단 근거로 삼는다는 논리적 모순이 지적되어 왔

다(Hare, 1986, 1996; Hare, Forth, & Stachan, 1992). 잠재적 특질을 토대로 범죄예측 등 미래행동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고 이를 위해 보다 다듬어진 정신병질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다.

현재 사용되는 정신병질의 개념이 형성된 것은 PCL(Psychopathy Checklist)이라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후 PCL-R을 이용한 많은 실증적 연구들(Hare, 1986, 1996; Hare & Craigen, 1974; Hare, Forth, & Stachan, 1992)이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실험과제를 이용한 연구들(Morton & Blair, 2006; Lorenz & Newman, 2002; William, Harpur, & Hare, 1991)을 통해 정신병질자들의 정서나 인지과정에 대한 특성들을 밝혀내었다. Hare (2003)는 정신병질자들은 대인관계 속에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정서적으로 피상적이며, 생활방식이 충동적이고 기생적이며 반사회적 범주의 행위들을 하기 쉽다고 하였다. 이러한 개념적 변화의 역사 속에서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정신병질의 특성을 포함하나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며, 이는 대부분의 정신병질자들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부분이라 함은 정신병질과 반사회성이라는 개념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많은 정신병질적 특성이 반사회성 특질들과 유사하나 일부는 차별화되며,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속하지 않는 정신병질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균(2006)은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감정의 미성숙과 책임감과 판단의 결여를 보이며, 사회규율을 어기고 경험을 통해 배우지 못하고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동이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이상성격’으로 정의하고, 강력범죄자의 대다수가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신병질자는 ‘사회병리나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이며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며 타인과의 애착심을 유지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로서 대부분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해당하나 일부는 정신병질자만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병질의 개념을 반사회성 성격과 유사한 면을 가지기도 하나 다른 특성도 존재하는 차별화된 개념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을 통한 실증연구들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을 이용한 정신병질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실시되고 그 결과 자료들이 축적되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정신병질적 소양이 발달되어온 경로와 행동적 특징들에 대한 것들로 나누어 진행되어 왔다. 먼저 정신병질적 소양의 발달 과정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기의 정신병질의 발달관련 변인들에 대해 개관한 광금주와 김연수(2008)는 개인 내적인 변인들이 외적인 변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발현해나가는 과정을 기질과 유전, 애착 및 학대와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관련지은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기질과 관련된 연구로는 1969년 335명의 3세 남녀 아동에게 공포반응과 자기억제 기질을 측정하고 25년 후 재측정한 장기종단 연구의 결과, 공포자극에 대한 반응이 적고 자기 억제를 못했던 아동들이 더 강한 정신병질 성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Glenné, Raine, Venables, & Mednick, 2007). 성인 정신병질자들의 뇌기능이 일반인들과 다르고(Blair, 2005), 아동 청소년기에 정신병질적 특성이 발현됨을 밝힌 연구들은 생물학적인

유전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보이는 결과이다(Frick, O'Brien, Wootton, & McBurnett, 1994, Glenne, Raine, Venables, & Mednick, 2007). 청소년 비행과 범죄를 연구해 온 학자들의 일부는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행동이 17세경 정점에 달했다가 감소한다는 보고를 하였으나(Hirsh & Gottfredson, 1983), 이는 범죄통계나 단기횡단적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장기종단 연구를 한 Patterson(1982)은 아동기 공격성 수준이 상위 5%에 해당하는 소년들 중 약 39%가 10년 지난 후에도 여전히 평균이상의 공격성을 유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아동이나 청소년기 비행경력을 지닌 이들 중 일부는 반사회적 성격특질을 성인기까지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기 정신병질에 대해서는 일치된 정신병리 범주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많은 연구자들은 정신병질자에 대한 연구문헌에서 나타난 특성과 유사한 특성이 아동과 청소년에서도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Frick, O'Brien, Wootton, & McBurnett, 1994; Lynam, 1997). 이는 아동에게서 정신병질이 나타난다는 직접적 증거를 보여준 것으로 성인 정신병질자들이 가지는 정서나 대인관계의 특징, 사회적 위법행위에 있어 유사한 모습이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나는데 유전적 요인이나 기질적 요인이 선행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에 환경이 영향을 주어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나게 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이수정, 허재홍, 2004). 최근 비행청소년들의 인지행동치료에서 고도불포화지방산의 복용을 병행한 효과를 검증한 연구(이창선, 김복희, 강영숙, 이수정, 2008)에서 주의력결핍을 지닌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영양학적 중재가 의미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병리적 행동의 원인들 중에서 인지적 요인에 더해 생물학적 요인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며, 환경적 요인의 구성 요소들 중에서 영양(nutrition)이라는 다른 측면의 효과를 증명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신병질이라는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유전, 기질과 환경적 요인들이 발달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거나 유지되어 가는데 대한 이해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발달과정을 통해 정신병질의 개념을 이해하려는 연구 뿐 아니라 이러한 정신병질이 구체적으로 개인 내에서 어떠한 행동특성들을 나타내는데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정신병질자들의 행동특성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공격성, 학습과 수행, 충동성과 자극추구, 대인관계, 인지적 결함과 전두엽 기능장애, 각성수준과 반응성 등의 다양한 영역들에서 실험과 경험적 연구들을 실시해 왔다.

Hare(1996)와 Cleckley(1976)는 정신병질자의 행동특성을 설명함에 있어 피상적인 매력, 공감능력의 부족이나 대인관계에서의 둔감함, 무책임함과 신뢰롭지 않은 것 등을 특징으로 들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정신병질자의 특성으로 공감의 결여를 드는데(Flight & Forth, 2007; Vitacco, Newmann, Caldwell, Leistico, & Van Rybroek, 2006; Woodworth & Porter, 2002),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공감 능력의 부족이 청소년이나 성인의 정신병질의 주요특성이며 행동특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병질자의 행동특성 중에서 본 연구의 목표와 관련되는 정신병질과 공감에 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감이란 '다른 이의 정서적 상

태나 맥락을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Cohen & Strayer, 1996). 많은 연구자들은 공감이 다른 이의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공감과 타인의 정서나 정서적 경험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인지적 공감으로 이루어진다는데 동의해 왔다(Jolliffe & Farrington, 2006).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친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하며(Ireland, 1999; Jolliffe & Farrington, 2006), 정신병질의 대인관계나 정서적 측면이 성인들의 공감능력 부족과 연관이 있음을 밝혀왔다(Hare, 2003). 성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Hare(2003)의 연구에서 일반적 공감에 대한 자기보고 점수가 정신병질과 부적인 상관을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공감 부족이 정신병질이나 반사회성과 가지는 관계를 직접적으로 탐색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신병질자들의 공감능력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다소 혼란스러운데, 이에 대한 해석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일반인 대상 연구들에서 공감능력이 높은 '성공적인 정신병질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DeMatteo, Heilbrun, & Marczk, 2005; Hall & Benning, 2006; Salekin, Trobst, & Krioukova, 2001; Skeem, Poythress, Edens, Lilienfeld, & Cale, 2003). 이들에 대한 연구들은 수감자가 아닌 대학생과 지역사회 대상의 연구들에서 자료들이 축적되어지고 있다. 두 번째 설명은 정신병질의 개념이 다차원적인 구성요인들을 가정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대인관계나 정서적 요소'와 '행동적이고 반사회적 특질'이라는 두 요인을 들고 있다(Hare, 2003; Benning, Patrick, Salekin, & Leistico, 2005). 이러한 정신병질 개념의 다차원적 특성으로 인해, 정신병질과 공감 사이의 복합적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공감에 대한 이 두 가지 광

범위한 요인들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공감 개념이 가진 이질성에 대한 것으로, Feshbach(1989)는 공감을 정의하는데 대해 연구자들이 이견을 가지며, 공감을 하나의 실체를 움직여 나가는 인지와 정서적 반응들로 보았다. 다른 연구자들은 공감을 인지와 정서적 요소로 나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봐야한다고 하였다(Mullins-Nelson, Salekin, Leistico, 2006). 공감능력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이론들은 정신병질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감 연구의 다양한 결과에 대한 세 가지 설명 외에 정신병질과 공감능력에 있어서의 성차와 관련된 주제들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공감능력에서의 남녀 차이에 대해서는 일반인 대상의 연구들에서 일관성 있게 보고되어 왔던 여성들의 우위가 범죄자 대상의 연구에서도 타인시각 수용이나 공감적 관심 등에서도 미약하나마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Ireland, 1999).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130명의 여성들이 44명의 남성들에 비해 일반적 공감과 공감적 관심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ullins-Nelson, Salwkin, & Leistico, 2006). Jackson, Rogers, Newmann과 Lambert(2002)는 공감 부족과 같은 정신병질의 정서적 특징이 여성 정신병질자와 일반인 사이에 뚜렷하게 구분되는 요인이라 하였으나 여성 정신병질자들의 공감에 대한 연구들이 많지 않고 그 결과들도 일관적이지 않다(Rostad & Rogers, 2008). 정서처리과정, 정보의 반구 간(interhemispheric) 전달과 성차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정신병질이 여러 면에서 정서적 냉담증(alexithymia)과 유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PCL-R의 제 1요인인 냉담함과 관련이 되며, Haviland 등(2004)은 냉담한 대인관계나 정서적 특성을 가지는 이들은 공감과 통찰이 부족하

고 행동을 통제하는데 자기반성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냉담함이 반사회성과도 연관이 있으리라 가정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Kroner와 Forth(1995)는 정서적인 요인이 사회적 일탈과 정신병리 총점과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방법론적 한계로 인하여 해석의 일반화에 제약이 있으며 일관된 결과들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신병질과 공감능력에 대한 성차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범죄사건의 기록이나 사회심리학 실험연구들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공격적이라 결론 내리고 있으며, 공격성의 성차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를 한 Hyde(1986)는 남성의 공격성 점수가 공격적 환상, 신체적 공격성, 모방적 공격성, 실험실 상황에서 타인에게 충격을 가하려는 의지 등 다양한 유형에서 여성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공격성에 대한 진화론적 분석을 지지하는 것이며, 타인에 대한 공격이 범죄 행위와 연관되고 반사회적 성격장이나 정신병질자들의 행동특성과 관련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결과들이다. 빈도-의존적 선택에 기초한 정신병, 질 이론을 제안한 진화심리학자인 Mealey(1995)는 정신병질자들이 대인관계에서 기만적이거나 사기를 치는 전략을 추구하며, 남성은 3-4%, 여성은 1%미만의 유병률을 보인다고 하였다. 특히 정신병질 특질을 지닌 남성들이 일반 남성들에 비해 성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고, 합법적이지 않은 관계를 통해 자식을 많이 낳고 이혼하는 경향이 더 높다고 한다 (Rowe, 1995).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인간의 행동을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의 일부이며, 본 연구를 통해 정신병질 특성

과 공감의 남녀 차이를 검증해 봄으로써 남성이 여성보다 공격적이고 타인에게 위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는 진화론적 가설과의 일치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즉 남성보다 여성이 정신병질 점수가 높고 타인에 대한 정서적 공감 수준도 높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병질적 특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정신병질자에 대한 연구에서 수감 중인 범죄자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이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해왔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내의 정신병질자들을 범죄로부터 막아내는 보호요인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Frick, Kimonis, Dandreaux, & Farrell, 2003; Lilienfeld, 1994). 본 연구에서도 그 결과를 통해, 공감능력의 보호요인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 수감된 범죄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일반인과 범죄인 정신병질자들의 특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정신병질을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PCL-R이 일반인 속의 정신병질자들의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여, 서로 다른 구성개념을 가지고 측정한 두 자료들을 비교해야하는 결과를 낳았다(Mamut, Homewood, Stevenson, 2008).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일반인 속의 정신병질 특성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자기보고식 도구들을 사용하고, 수감된 정신병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정신물리학적이고 신경심리적인 방식으로 달리 진행되어 왔다(Blair et al., 2006; Lorber, 2004; Smith, Arnett, & Newman, 1992). 향후 연구들이 이러한 방법론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해가면서 두 집단의 정신병질적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들을 진행해 나간다면, 정신병

질 특성에 미치는 환경이나 발달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에 대한 이해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신병질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일치되지 않거나 부족한 영역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병질이나 반사회성 특징, 공감능력을 알아보고 이러한 특성들이 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가설은 첫째 정신병질이나 반사회적 특질 점수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높을 것이고 공감 수준은 여성들이 더 높을 것이다. 둘째, 정서적 공감은 기존 연구들에서와 같이 정신병질이나 반사회성과 부적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셋째, 이러한 관계는 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연구문제와 가설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추후 일반인들의 정신병질이나 반사회성을 설명하는 다양한 행동특성들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서적 공감수준이 정신병질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는데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 연구 방법

### 연구대상 및 절차

경기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215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반사회성 검사에 응답하지 않은 남성의 자료 1부를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14부로 남성은 117명, 여성은 97명이었다. PPI-R에는 4가지 타당도 척도가 있으나 검사점수의 변별

기준을 이용해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권유하며, 타당도 척도를 통한 타당도가 의심스럽다 판단되는 경우에도 총점과 내용척도 및 요인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수정, 박혜영, 2009). 참가자들의 연령의 범위는 만 18세부터 36세까지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0.76세이었다(남성연령평균:20.93세, 여성연령평균:20.56세).

### 측정도구

#### 정신병질 척도

본 연구에서 정신병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는 정신병질적 성격 질문지 개정판(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PPI-R)이다. PPI-R은 정신병질의 특성들을 측정하기 위해 Lilienfeld와 Andrews(1996)에 의해서 개발된 PPI(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의 개정판으로 Lilienfeld(2005)에 의해 고안되었다. 이 검사는 임상 장면과 일반인, 그리고 범죄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되었다(Lilienfeld & Widows, 2005). 본 연구에서 사용된 PPI-R은 국내에서 이수정, 박혜영, 공정식(2007)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PPI-R은 2개의 타당도 척도와 8개의 내용척도로 구성되어있다. 타당도척도는 도덕적 반응(VR)과 비정상적인 반응(DR)이 있다. 내용척도는 권모술수적 이기주의(ME), 반항적인 비협조(RN), 비난의 외재화(BE), 무책임한 비계획성(CN), 사회적 영향력(SOI), 대담성(F), 스트레스 면역(STI), 냉담함(C)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Benning 등(2003)이 제시한 2요인 모형구조와도 유사하며 PCL-R의 1요인과 2요인 차원을 토대로 하여 자기중심적 충동성 요인과 대담성 우세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자기충동적 요인에는 ME, RN, BE, CN 척도가

포함되며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게 무례하며 전통적 가치와 다른 사람을 무시 혹은 비난하는 성향을 나타낸다. 대담성 우세요인은 SOI, F, STI 척도가 들어가며, 사회적 혹은 신체적 불안이나 두려움의 수준이 보통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거나 부재함을 뜻한다. PPI-R은 총 154문항으로 이루어져있고 응답은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 자료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는 .86이었다.

### 반사회성 척도

본 연구에서 반사회성 성격특징을 측정하기 위해 PAI 검사 상의 반사회특징 척도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는 1991년 Morey가 성격과 정신병리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객관적 검사로 임상 장면에서 환자나 내담자에 대한 주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PAI는 4점 척도(0-3)로 총 344문항이며, 전체 22개의 척도로 구성되었다. 22개 척도는 4개의 타당도 척도, 11개의 임상척도, 5개의 치료고려척도, 2개의 대인관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10개의 척도는 3-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복잡한 임상적 구성개념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진단용 성격검사보다 해석이 더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반사회적 특징척도(Antisocial Features; ANT)는 범죄행위, 권위적 인물과의 갈등, 자기중심성, 공감과 성실성의 부족, 불안정, 자극추구 등에 초점을 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s; ANT-A), 자기중심성(Egocentricity; ANT-E), 자극추구(Stimulus-Seeking; ANT-S) 등 3개의 하위척도가 있다(김영환, 오상우, 임영란, 김지혜, 홍상환, 2001). 본 연구 자료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81이었다.

### 공감척도

본 연구에서 공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Mehrabian과 Epstein(1972)의 정서공감질문지(Emotional Empathy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이후 정서적 공감 경향 척도(Emotional Empathy Tendency Scale)로 명명되었다(Mehrabian, Young, & Sato, 2002). 본 연구에서는 박성희(1994)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정서적 공감경향척도는 '누가 우는 것을 보면 동정보다 짜증이 난다', '다른 사람이 웃는다고 따라 웃지 않는다' 와 같은 부정적 진술문 18개 문항을 포함하여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공감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타인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양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기보고식 검사도구이며,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수준이 높음을 뜻한다(설현수, 김동민, 이수현, 2006). 이 척도는 원래 9점으로 채점하게 되어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설현수, 김동민, 이수현(2006)이 5점 척도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62이었다.

###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 척도의 점수들의 평균을 계산하고 그 남녀 차이에 대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정신병질, 반사회성과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자 상관분석을 하였고, 전체와 남녀별로 결과를 살펴보았다. 정신병질을 설명하는 요인들이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정신병질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반사회성 척도와 공감능력을 예언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 확인된 성차를 구체화하고자 본

연구 대상 중에서 정신병질척도인 PPI-R의 상위 30%와 하위 30% 해당하는 집단에 대해 반사회성 척도와 공감능력 점수를 남녀 별로 비교하였다.

( $t=1.667, ns$ ). 공감점수는 여성들의 평균인 높았고 그 차이도 유의미했다( $t=-6.607, p < .001$ ).

## 결 과

### 정신병질, 반사회성 특징과 공감능력

본 연구에서 사용한 PPI-R 검사는 원점수를 규준에 근거하여 T-점수로 변환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남성은 51.69(7.85)이었으며, 여성은 이보다 높은 57.30(8.38)이었다. 규준 상에서 정신병질 경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 점수(cut-off score)는 65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경우, 전체 214명 중 23명이었다. 이 중 남성이 5명이었으며 여성은 18명이었다. 이 같은 점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으로 정신병질 경향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으로 조금 놀라운 결과이다. 남녀별 평균 점수의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회성 점수도 남성 평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1. PPI-R, PAI, EETS의 남녀평균과 표준편차

	성별	평균	t
PPI-R (정신병질)	남	51.69(7.85)	-5.06***
	여	57.30(8.38)	
PAI (반사회성)	남	45.86(9.50)	1.67
	여	43.82(8.12)	
EES (공감)	남	83.88(8.67)	-6.61***
	여	91.01(6.77)	

\*\*\*  $p < .001$

### 정신병질 경향과 공감능력의 관계

정신병질 경향과 반사회성, 정서공감척도와 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하위척도를 포함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PPI-R의 하위요인들은 자기중심적 충동성(SCI)과 대담성 우세(FD)요인으로 구분하였다. PPI-I은 PPI-R의 FD요인과 동일한 개념이며 PPI-II는 ‘충동적인 반사회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PPI-R의 SCI 요인과 유사한 특질을 평가한다(Lilienfeld & Widows, 2005). 먼저, 전체 대상으로 볼 때,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반사회성과 공감 점수 간의 상관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는 각각 반사회성 총점, 하위척도인 반사회적 행동, 자기중심성, 자극추구가  $-.264 (p < .001)$ ,  $-.270(p < .001)$ ,  $-.193(p < .01)$ ,  $-.169 (p < .05)$  로 반사회적 특징 점수가 올라갈수록 정서적 공감척도의 점수는 낮아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정서적 공감 점수와 PPI-R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공감척도와 의 상관에 성차가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남성들과 여성들 각각의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되었다.

남성들의 경우, 반사회성 특징 척도(총점과 세 가지 하위척도) 뿐 아니라 정신병질 점수도 총점과 자기중심적 충동성의 하위요인 점수가 공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상관 분석에서 공감과의 부적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던 정신병질

표 2. 전체의 정신병질, 반사회성, 공감 점수들간의 상관

	PPI-R	PPI-SCL	PPI-FD	반사회성	반사1	반사2	반사3
PPI-SCL	.802**						
PPI-FD	.713**	.275**					
반사회성	.555**	.547**	.336**				
반사1	.320**	.318**	.164*	.701**			
반사2	.469**	.533**	.152*	.776**	.333**		
반사3	.475**	.403**	.428**	.831**	.407**	.439**	
공감	-.083	-.005	.047	-.264**	-.270**	-.193**	-.169*

PPI-R: 정신병질 성격 평가검사 개정판(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PPI-R(SCL): 자기중심적 충동성(권모술수적 이기주의 + 반항적인 비협조 + 비난의 외재화 + 사회적 영향력)

PPI-R(FD): 대담성의 우세(사회적 영향력 + 대담성 + 스트레스 면역)

반사회성: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반사회성 척도.(ANT)

반사1: 반사회성 행동 반사2: 자기중심성 반사3: 자극추구

공감(EETS): 정서적 공감

\* $p < .05$ , \*\* $p < .01$ , \*\*\* $p < .001$

표 3. 남성들의 정신병질, 반사회성, 공감 점수들 간의 상관

	PPI-R	PPI-SCL	PPI-FD	반사회성	반사1	반사2	반사3
PPI-SCL	.800**						
PPI-FD	.711**	.212**					
반사회성	.664**	.660**	.341**				
반사1	.355**	.371**	.125*	.719**			
반사2	.557**	.617**	.209*	.791**	.332**		
반사3	.632**	.558**	.438**	.859**	.473**	.513**	
공감	-.340**	-.269**	-.011	-.312**	-.268**	-.294**	-.193*

PPI-R: 정신병질 성격 평가검사 개정판(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PPI-R(SCL): 자기중심적 충동성(권모술수적 이기주의 + 반항적인 비협조 + 비난의 외재화 + 사회적 영향력)

PPI-R(FD): 대담성의 우세(사회적 영향력 + 대담성 + 스트레스 면역)

반사회성: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반사회성척도.(ANT)

반사1: 반사회성 행동 반사2: 자기중심성 반사3: 자극추구

공감(EETS) : 정서적 공감

\* $p < .05$ , \*\* $p < .01$ , \*\*\* $p < .001$

표 4. 여성들의 정신병질, 반사회성, 공감 점수들 간의 상관

	PPI-R	PPI-SCL	PPI-FD	반사회성	반사1	반사2	반사3
PPI-SCL	.748**						
PPI-FD	.727**	.295**					
반사회성	.593**	.627**	.373**				
반사1	.413**	.424**	.252*	.661**			
반사2	.428**	.534**	.083	.767**	.339**		
반사3	.476**	.438**	.470**	.785**	.287**	.348**	
공감	-.113	-.085	.014	-.109	-.215*	-.068	-.002

PPI-R: 정신병질 성격 평가검사 개정판(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PPI-R(SCL): 자기중심적 충동성(권모술수적 이기주의 + 반항적인 비협조 + 비난의 외재화 + 사회적 영향력)

PPI-R(FD): 대담성의 우세(사회적 영향력 + 대담성 + 스트레스 면역)

반사회성: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반사회성척도.(ANT).

반사1: 반사회성 행동 반사2: 자기중심성 반사3: 자극추구

공감(EETS) : 정서적 공감

\* $p < .05$ , \*\* $p < .01$ , \*\*\* $p < .001$

총점과 자기중심적 충동성요인의 점수가 계수  $-.340(p < .001)$ 과  $-.269(p < .01)$ 로 나타난 것이 특이할 만하다.

정신병질 성향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여성들의 경우,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반사회적 성격척도의 하위 척도인 반사회성 행동만이 공감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r = -.215, p = .034$ ). 반사회성 척도와 정신병질 척도 간의 상관에 있어서, ‘반사회적 행동’과 정신병질의 하위요인 중 ‘대담성의 우세’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r = .083, ns$ )

반사회성과 공감능력이 정신병질에 미치는

표 5. 전체의 정신병질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투입단계	예언변인	Beta	t	R <sup>2</sup>	R <sup>2</sup> 변화량	F변화량
1	반사회성 총합	.558	9.432***	.311	.311	88.960***
2	반사회성 총합	.608	11.472***	.459	.148	83.065***
	성별	.338	7.313***			
3	반사회성 총합	.582	10.723***	.470	.011	57.563***
	성별	.434	7.548***			
	공감능력	-.119	-2.002*			

\* $p < .05$ , \*\*\* $p < .001$

영향이 성에 따라 달리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를 대상으로 성별, 반사회성(하위척도 포함)과 공감능력이 정신병질 특성을 설명하는지 살펴보았는데, 각 단계별로 반사회성, 성별, 공감이 31.1%, 성별이 14.8%, 공감이 1.1%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즉 1단계에서는 반사회성의 총합이 정신병질의 31.1%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효과( $F(1,197) = 88.96, p < .001$ )를 나타냈다. 2단계에서는 성별이 정신병질의 14.8%를 설명함으로써 유의미한 효과( $F(2, 196) = 1, p < .001$ )를 보였다. 3단계에서는 공감능력의 총합이 정신병질의 1.1%를 설명하였고 이는 유의미하였다( $F(1, 197) = 17.13, p < .001$ ).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남녀별로 다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녀에 따라 양상을 보였다(표 6, 7). 남성들의 경우, 1단계에서 반사회성 총합이 정신병질의

45.5%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F(1, 104) = 86.83, p < .001$ ). 2단계에서는 공감능력이 2.8%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효과( $F(2, 103) = 48.04, p < .001$ )를, 3단계에서는 반사회성의 행동척도가 2.4%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효과( $F(3, 102) = 35.02, p < .001$ )를 나타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반사회성 총합만이 정신병질의 34.9%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F(1, 91) = 48.81, p < .001$ ).

#### 정신병질 상하위 집단별 공감능력의 차이

정신병질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가 성별로 달리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정신병질 척도 점수의 상위 30%와 하위 30%를 이용하여 정신병질 상위집단과 정신병질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반사회성과 공감능력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신병질 상위집단에서 반사회적 특

표 6. 남성의 정신병질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투입단계	예언변인	Beta	t	R <sup>2</sup>	R <sup>2</sup> 변화량	F변화량
1	반사회성 총합	.675	9.318***	.455	.455	86.824***
2	반사회성 총합	.618	8.268***	.483	.028	48.035***
	공감	-.175	-2.344***			
3	반사회성 총합	.786	7.551***	.507	.024	35.018***
	공감능력	-.183	-2.498*			
	반사회적 행동	-.232	-2.265*			

\*  $p < .05$ , \*\*\*  $p < .001$

표 7. 여성의 정신병질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투입단계	예언변인	Beta	t	R <sup>2</sup>	R <sup>2</sup> 변화량	F변화량
1	반사회성 총합	.591	6.986***	.349	.342	48.806***

\*\*\*  $p < .001$

표 8. 남성들의 정신병질 수준별 공감능력 차

	정신병질 (명)	평균 (표준편차)	t
반사회성	저(36)	40.75(6.19)	-7.17***
	고(36)	54.17(9.36)	
공감	저(36)	86.19(8.69)	3.47**
	고(36)	79.53(7.58)	

\*\*  $p < .01$ , \*\*\*  $p < .001$

표 9. 여성들의 정신병질 수준별 공감능력 차

	정신병질 (명)	평균 (표준편차)	t
반사회성	저(30)	38.83(7.22)	-6.22***
	고(29)	50.41(7.07)	
공감	저(30)	92.40(6.52)	2.01*
	고(29)	89.14(5.95)	

\*  $p \leq .05$ , \*\*\*  $p < .001$

징 하위척도들과 총점이 하위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정서적 공감지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병질 점수의 상위와 하위 집단 간의 정서적 공감 점수 간의 차이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자 집단에서 유의하였다( $t=3.47, p < .001$ ).

여자들의 경우도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반사회성 특성의 차이( $t=-6.22, p < .001$ )와 공감능력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t=2.01, p \leq .05$ ).

## 논 의

심리학에서 성차에 대한 논의는 아주 오래

된 그러나 해결되지 못한, 앞으로도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 지 알 수 없는 논쟁거리 중의 하나이다. 특히 지금까지 기준으로 인정되어 온 기본적 연구들에 대한 사회 구성주의적 입장에서의 지적이 타당성과 의미를 인정받는 시점에서 성차를 논의하는데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는 정신병질의 경향과 공감 능력이 남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각 요인들 간의 관계가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정신병질, 반사회성과 정서적 공감 점수의 평균을 남녀에 따라 비교했을 때, 정신병질 점수의 평균은 여학생들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사회성은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공감은 기존연구결과들과 일치하게 여성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에서 반사회적 성격특징은 남녀 모두에서 정신병질 특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적 공감지수는 부적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정서적 공감은 반사회적 특징 척도의 하위요인들 모두와 정신병질 척도 점수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에도 정서적 공감지수가 다른 변인들과 전반적으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은 하나 반사회적 특징 척도의 반사회성 행동 하위척도 점수와의 상관만이 유의하였다.

반사회성과 공감능력이 정신병질에 미치는 영향이 성에 따라 달리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실시한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성별이 유의미한 효과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다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성들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반사회성 총합, 2단계에서는 공감능력이, 3단계

에서는 반사회성의 행동척도가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반사회성 총합만이 정신병질의 34.9%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성별로 인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정신병질 척도 점수의 상위 30%와 하위 30%를 이용하여 정신병질 상위집단과 정신병질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변인들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정신병질 상위집단에서 반사회적 특징 하위척도들과 총점이 하위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정서적 공감지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병질 점수 수준에 따른 정서적 공감 점수의 차이는 남자와 여자 집단에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의 정신병질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연구대상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남성들의 정신병질 점수가 높다는 연구결과들(Lilienfeld & Widows, 2005; Mahmut, Homewood, & Stevenson, 2007)과는 불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병질 성격평가 검사 개정판(PPI-R)의 국내 표준화를 위한 연구(이수정, 박혜영, 2009)에서는 본 연구와 같이 여성집단 총점 평균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미국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다른 결과가 본 연구에서 나온 것에 대해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Cleckley(1941)와 Hare(1993)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신병질의 구성개념을 적용한 사례연구를 수행해 왔으나 정신병질연구에서 여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10년간에 일어난 일이다(Rostard & Rogers, 2008). 이러한 정신병질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주로 남성 수감자들을 대

상으로 이루어져 왔고, 여성 수감자들에 적용할 때, 평가과정이나 정신병질의 구성개념을 수정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Nicholls & Petrila, 2005).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가 대학생들이고 전체 숫자가 많지 않다는 제한점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를 통해 재검증되어야할 부분이다. 또한 이수정과 박혜영(2009)이 제안하였던 문화교차적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해 보아야할 것이다.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에서 반사회적 성격특징은 남녀 모두에서 정신병질 특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조심스런 해석을 요한다. 반사회적 성격특징과 정신병질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Ogloff(2006)가 확인되지 않은 추정을 경고하였듯이, 재소자들의 50-80%가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았으나 그 중 15-25%만이 정신병질적인 것으로 분류되었다고 보고했다(Hare, 2003, Hart & Hare, 1989). Lilienfeld와 Widow(2005)는 정신병질 검사(PPI-R)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반사회성 검사(PAI)를 포함한 다양한 성격변인 검사 점수와 상관을 분석하였다. 수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결과, PPI-R총점이 PAI의 ANT(반사회적 특징) 척도와 상관관계를 보였고( $r = .70, p < .01$ ) 이는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하였다(Chapman, Gormore, Farmer, 2003; Hicklin, 2003). 비수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상관 연구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r = .39, p < .01$ ).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반사회성 특징이 정신병질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구인임을 보이지만, 반사회성 성격장애자들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이 정신병질자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정신병질과 정서적 공감지수는 전체적으로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고, 특히 남성의 경우

정서적 공감은 반사회적 특징 척도의 하위요인들 모두와 정신병질 척도 점수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정서적 공감지수와 반사회적 특징 척도의 반사회성 행동 하위척도 점수 간의 상관만이 유의미하였다. 정신병질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성별, 반사회성 척도와 그 하위요인, 공감점수를 예측변인으로 실시한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성별이 유의미한 효과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들의 경우에는 반사회성 총합, 공감능력, 반사회성의 행동척도가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반사회성 총합만이 유의미한 설명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들의 경우, 정신병질이 반사회성의 특징과 공감능력의 부족으로 설명되거나 여성들의 경우, 공감능력이 정신병질 특성과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성별로 인한 차이를 정신병질 상위 집단(30%)과 정신병질 하위집단(30%)으로 구분하여 각 변인들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정신병질 상위집단에서 반사회적 특징 하위척도들과 총점이 하위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정서적 공감지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신병질 점수 수준에 따른 정서적 공감 점수의 차이가 남자 집단에서 크게 나타난 것은 단언적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려우나 정신병질 특징을 가지는 남성들이 정서적 공감능력이 특히 저조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남녀 간의 공감능력에 대한 일반인들에 대한 연구(Davis, 1983; Eisenberg & Strayer, 1987; Jolliffe & Farrington, 2006) 뿐 아니라 범법집단에 대한 연구에서도 여성들이 공감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reland, 1999). 본 연구의 자료에서도 남녀 집단 간 평균 비교에서는 여성들이 유의하게 높았다. 남성들의 공감 능력이 정신병질 특성이 높을 경우, 상대적으로 낮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공감능력을 학습하고 활용해 나가는데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정신병질이라는 특성과 연관되는 경우 배가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차의 결과를 남녀 간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격성에서의 성차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Hyde, 1986)에서 성차의 크기가 공격적 환상이나 신체적 공격성에서는 성차의 효과크기가 큰 반면, 적개심 점수에서는 성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남성들의 공격성 점수가 여성보다 높았으며, 공격의 패턴에서도 다른 성의 조합보다 남성-남성인 경우가 월등하게 공격발생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Hilton, Harris, & Rice, 2000). 이는 동성 간의 살인 통계를 광범위한 문화권을 포함한 35개의 다양한 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했던 Daly와 Wilson(1988)이 ‘지금까지 어떤 사회에서도 여성이 남성에게서 횡행하는 폭력적인 갈등의 수준에 접근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결론지은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남성들에게서 나타나는 공격성에서 적개심점수가 여성과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남성들의 공격성이 정서적인 특성보다는 공격 행위 그 자체나 그와 관련된 심상이나 의지와 관련된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정신병질의 특성을 앞서 정의한 바대로 ‘사회병리나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이며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며 타인과의 애착심을 유지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로 본다

면, 공격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신병질 특성에 대해서도 연관시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PPI-R의 '대담성의 우세' 하위요인만이 공감과의 부적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던 결과도 그 관련성을 재고하게 한다. '대담성의 우세'라는 하위요인의 점수는 8가지 내용척도 중에서 사회적 영향력, 대담성, 스트레스 면역 척도를 통합한 것으로 사회적 혹은 신체적인 불안이나 두려움의 수준이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거나 부재함을 뜻한다(이수정, 박혜영, 2009). 이러한 특성의 요인 점수만이 공감과 유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남성들의 공감능력이 자기중심적 충동성 요인과 더 밀접할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추후 정신병질적 특성의 외현화를 방지하기 위한 현장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이와 같은 남성들의 공감능력 특성들을 고려하여 자기중심적 시각으로부터 타인의 조망을 이해하고 충동성을 조절하는 방식 등을 포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의 정신병질 경향이 공감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 확인하고자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남녀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대상과 방법 등 연구 과정에서 조정하지 못한 한계점들을 정리해보고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수용자들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병질 특성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20대 초반의 동일 학교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본 연구 결과가 정신병질에 대한 특성이나 그에 대한 남녀 차에 대한 논란 속에 실증적 자료를 축적해 가는 것에 의미를 두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단순상관 분석,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정신병질 점수의 상위 30%와 하위30%로 나누어 공감과의 관계를 비교한 것은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나 경로를 추정하기에 제한적인 것이다. 추후연구에서는 보완된 연구 설계를 통해 변인들 간의 경로분석이나 인과모형 분석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개인자료에 대한 해석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신병질적 특성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얻고자 한 것이므로 정신병질 척도 점수의 상하위점을 연구자들이 지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표준화된 점수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해당하는 숫자가 적어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추후 자료들이 수집되어진다면 보다 객관적인 구분점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정신병질 연구에 있어 일반인과 범죄자들, 여성과 남성에 대한 비교 연구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정신병질의 특성을 지닌 이들에 대해 연구해온 연구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정신병질자들과 범죄자가 아닌 정신병질을 지닌 이들 간의 차이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기존의 정신병질에 대한 연구들이 범죄행위로 수용되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로 실시된 결과, 범죄를 예측하기 보다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특성을 역으로 추적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병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정신병질의 발달과정이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특히 이러한 일반인 대상의 연구 결과 자료들은 정신병질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이들이 가진 보호 요인에 대한 연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반사회성과 정신병질 척도, 정서적 공감과의 상관관계가 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은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사회성의 특질이 남성들과는 다른 구인이나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음을 추론케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정신병질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남성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이 가진 특성들이 간과되거나 주목받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향후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남녀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그 결과들이 축적되어나간다면 성차에 대한 보다 일관성 있고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해 질 것이다.

심리학이 인간의 성격을 연구하는 목적이 현상을 진단하여 특질을 제한하고 규정하고자 함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상태 파악과 규정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적응상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에도 이로운 방향으로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 수립을 위한 해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신병질이라는 아직도 다소 낯선 성격 요인의 개념이 잠재적 범죄 위험요인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지 그 발달 과정이나 발현되는 행동특성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성격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적응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곽금주, 김연수 (2008). 발달적 관점에서 본 정신병질.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1), 71-89.
- 김교현, 권선중, 이홍표 공역 (2005). *마음의 기원: 진화심리학*. 도서출판 나노미디어.
- Buss, D. (2004). *Evolutionary Psychology: the new science of the mind(2nd)*. Allyn & Bacon.
- 김영환, 오상우, 임영란, 김지혜, 홍상환 (2001). PAI 표준화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311-329.
- 박성희 (1994). *공감, 공감적 이해*. 서울:원미사.
- 박혜영 (2007). 정신병질적 성격 질문지 개정판(PPI-R)의 타당도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수균, 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09-826.
- 설현수, 김동민, 이수현 (2006). 정서적 공감척도의 타당화 및 차별기능문항 탐색. *교육평가연구*, 19(2), 179-201.
- 양기숙 (2007).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진 살인범 집단의 공격성과 충동성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정, 박혜영, 공정식 (2007). KCPI와 PPI-R을 통한 수용자들의 출소 후 재범여부의 예측. *한국경찰학회보*, 14, 161-187.
- 이수정, 박혜영 (2009). *한국판 정신병질 성격평가 검사: 전문가 지침서*.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 이수정, 허재홍 (2004). 잠재적 범죄위험요인으로서의 정신병질.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2), 39-77.
- 이인혜 (1991). 범죄행동과 성격특성에 연결: 정신병적 경향성, 외향성, 충동성 그리고

- 감각추구성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126-136.
- Benning, S. D., Patrick, C. J., Salekin, R. T., & Leistico, A. R.(2005).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psychopathy factors as assessed by self-report. *Assessment*, 12, 270-289.
- Bierhoff, H. (2002). *Prosocial Behavior*. Psychology Press.
- Champman, A. J., Gremore, T. M., & Farmer, R. F. (2003).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PPI) with female inmat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0(2), 164-172.
- Cleckley, H. (1964). *The Mask of Sanity*(4ed). St. Louis, MO: Mosby.
- Davis, M. H. (1983). Measuring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3-126.
- Eisenberg, N. & Strayer, J.(1987). Critical Issues in the study of empathy. In N. Eisenberg & J. Strayer(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3-1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rrington, D. P. (2000). Psychosocial predictors of adult antisocial personality and adult conviction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18, 605-622.
- Farrington, D. P. (2006). Family background and psychopathy. In C. J. Patrick (Ed.), *Handbook of psychopathy*. New York, NY: Guilford Press.
- Frick, P. J., Kimonis, E. R., Dandreaux, D. M., & Farrell, J. M. (2003). The 4 years stability of psychopathic traits in non-referred youth.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1(6), 713-736.
- Glenné, A.L., Raine, A., Venables, P. H., & Mednick, S. A. (2007). Early temperamental and psychophysiological precursors of adult psychopathic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6(3), 508-518.
- Goldstein, A. P., & Michaels, G. Y. (1985). *Empathy: Development, training, and consequenc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Hall, J. R., & Benning, S. D. (2006). The 'successful psychopath': Adaptive and subclinical manifestations of psychopathy in the general population. In C. J. Patrick (Ed.), *Handbook of psychopathy* (pp. 459-478). NewYork, NY: Guilford Press.
- Hare, R. D. (1986).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 Toronto Multi-Health Systems.
- Hare, R. D. (1993). *Without conscience: The disturbing world of the psychopaths among us*. New York: Guilford Press.
- Hare, R. D. (1996). Psychopathy: A clinical construct whose time has com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3, 25-54.
- Hare, R. D., Forth, A. E., & Stachan, K.E., (1992). Psychopathy and crime across life-span. In R.D. Peters, R.J. McMahon, & V.L. Quinsey (eds.), *Aggression and Violence Throughout the Life-Span*. Newbury Park, CA: Sage.
- Hart, S. D. & Hare, R.(1989).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psychopathy checklist in a forensic psychiatric popul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 211-218.
- Haviland, M. G., Sonne, J. L.,Kowert, P. A. (2002). Alexithymia and Psychopathy:

- Comparison and application of California Q-set prot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2, 306-316.
- Hichlin, J. M. (2003). Psychopathy an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Self-report inventor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4, 2389.
- Hirsh, T. & Gottfredson, M. (1983). A general theory of crime.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yde, J. S. (1986). Gender differences in aggression. In J. S. Hyde & M.C. Linn (Eds.), *The psychology of gender: Advances through meta-analysis*. Baly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Ireland, J. L.(1999). Provicim attitudes and empathy in relation to bullying behavior among prisoner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ical*, 4, 51-66.
- Jackson, R. L., Rogers, R., Neumann, C. S., & Lambert, P. L. (2002). Psychopathy in Female Offender: An Investigation of its underlying dimension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9, 692-704.
- Jolliffe, D. & Farrington, D. P. (20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Basic Empathy Scale. *Journal of Adolescence*, 29, 589-611.
- Kroner, D. G. & Forth, A. E. (1995). The Toronto Alexithymia Scale with incarcerated offende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 373-391.
- Lilienfeld, S. O. (1994). Conceptual problems in the assessment of psychopathy. *Clinical Psychology Review*, 14(1), 17-38.
- Lilienfeld, S. O. (2005). *Psychopathic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Florida, U.S.A.*
- Lilienfeld, S. O. & Widows, M. R. (2005). *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Professional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Florida, U.S.A.*
- Mahmut, M. K., Homewood, J., & Stevenson, R. J. (2007). The characteristics of non-criminals with high psychopathy traits: Are they similar to criminal psychopath?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3), 479-692.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aley, L.(1995). The sociobiology of sociopathy: An integrated evolutionary model.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8, 523-572.
- Mehrabian, A., & Epstein, N. (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 525-543
- Mullins-Nelson, J. L., Salekin, R. T.,& Leistico, A. R. (2006). Psychopathy, empathy, and perspective-taking ability in a community sample: Implications for the successful psychopathy concept.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nsic Mental Health*, 5, 133-149.
- Nicholls, T. L. & Petrila, J. (2005). Gender and Psychopathy: An Overview of important issues and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3, 729-741.
- Ogloff, J. R. P. (2006). Psychopathy/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conundrum.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0, 519-528.
- Patterson, P. (1982). *Cohesive family process*. Eugenc OS: Castalia.

- Rostard, J. E. & Rogers, R. (2008). Gender differences in contributions of emotion to psychopathy an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 1472-1484.
- Rowe, D. C. (1995). Evolution, mating effort, and crim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8*, 573-574.
- Vitacco, M. M., Newmann, C. S., Caldwell, M. F., Leistico, A. M., & Van Rybroek, C. J. (2006). Testing factor models of the Psychopathy Checklist: Youth version and their association with instrumental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7*, 74-83.
- Woodworth, M., & Porter, S. (2001). Historical Foundations and Current Applications of Criminal Profiling in Violent Crime Investigations. *Expert Evidence, 7*: 241-261.
- 1 차원고접수 : 2009. 5. 15.  
심사통과접수 : 2009. 6. 01.  
최종원고접수 : 2009. 6. 26.

## **Gender Differences in Contribution of Antisocial Personality and Affective Empathy to Psychopathy**

**Beomjun Kim      Eunjin Lee      Youngyoun Kim**

Criminal Psychology,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gender differences in contribution of antisocial personality and affective empathy to psychopathy. Two hundred fifteen college students (male, 118; female, 97) completed three measures including the PPI-R (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the PAI-ANT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Antisocial Features), and the EETS (Emotional Empathy Tendency Scale).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ean scores of PPI-R and EETS in male group were higher than in female group. Antisocial feature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psychopathy in both male and female groups and negatively with affective empathy. Males showed that the scores of affective empathy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ose of antisocial features and psychopathy. Females showed that the scores of affective empathy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ose of antisocial personality and psychopathy but the correlation was significant only with the scores of antisocial behavior (ANT-A). To scrutinize the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groups, the scores on the PAI and EETS were compared between 30% upper and 30% lower groups based on the scores of the PPI-R.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upper group of the scores on the PPI had higher scores on the PAI and lower scores on the EETS. The differences of the scores on the EETS between high-psychopathy and low-psychopathy groups were bigger in male group than in female group. Explan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 and the directions of the future studies were suggested.

*Key words* : gender differences, psychopathy, antisocial personality, emotional empathy